

REFLECTION ADVENT 3

Isaiah 35: 1-10, Matthew 11: 2-11

저는 정말 대림절을 좋아합니다. 대림절은 믿음의 일상적인 관례를 깨고,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관습적인 여정 같아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음에도,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대림절의 특별한 여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예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서는 것과 희망 둘 다 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 한다면 힘든 상황에 맞서는 것과 희망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에서 우리는 아직도 광야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 장소에서 지난 일요일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저는 세례 요한의 예상이 예수님 걸보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진정 그 사람인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마태는 또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들은 볼 것이요, 절름발이는 걷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에서부터 모두 인용하셨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정 예언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이 작용하는 것 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다. 우리는 또한 지난 주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오신 구세주에 관해 이야기하는 요한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태 역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에서 읽은 책의 문맥에서 이것에 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35 장은 우리에게 사막 꽃의 멋진 이미지를 보여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빌론 망명으로 떠나기 전에, 적대적이고 가혹한 사막에 대한 재판과 이미지에 대한 끔찍한 예언들이 만들어졌던 이전의 장들에 대한 반대 되는 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명을 회복하고 삶의 모든 것을 되돌리는 하나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림절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막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아마도 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놀랍도록 만발한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린 후에 생명이 소생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제 생각엔 생명체가 휴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열과 완전 건조함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호주에서 보는 기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새들이 비가 오기 전에, 에어호수를 향해 날아가고, 나중엔 바싹 마른 호수 바닥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비가 오고 물이 강으로 흘러 내리는 가 하는 것 입니다. 새들이 그들의 먹이의 원천이 불어난 것을 찾기 위해 도달합니다, 생명이 증가하고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막은 수 천년 동안 영적인 상징이었고, 영적인 여정에 대한 사람들의 영적인 만남과 대립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3 세기 무렵, 사막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그들의 격변에서부터 와 기독교 생활에서의 하루하루의 협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특이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떠나서 그들이 직면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투쟁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들 중에서도 그들은 많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너의 감방에 앉아라 그러면 그 감방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와 같은 간단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향한 외침과 침묵을 탐구하는 것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 지난 세기의 첫번째 세기의 Charles de Foucauld 는 그의 회심의 경험 후에 프랑스에서 부유한 삶을 떠났습니다. 그는 은둔자로서 사하라 사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막을 건너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막이 현실이자 우리 삶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막이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모두는 아마 인생이 무상하게 보이고, 건조하고, 칙칙하고 생명체가 없어 보이고, 지평선 위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시기를 우리 모두는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때, 두려움과 고립감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고; 황무지가 즐거워하고 꽃이 필 것 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는지요? 이사야서를 다시 봅시다. 그는 "넓은 도로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신성한 길 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 은 단순한 문구 이상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길의 사람들"이 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만남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중 몇 분은 10 일 전에 데일리 텔레 그래프 1 면 헤드 라인 격분을 추종하는 "예수님은 닦으셨다", 그것은 그들이 "보살핌"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Uniting 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제시한 논평입니다. 그것은 Uniting 교회가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가 무엇을 했었는지를 무시해버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회장과 조정자 모두가 강력히 호응한 부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슬프게 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가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길은 십자가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은 사막의 장소와 변성하는 장소, 창의성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성령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요한이 알았고 예수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삶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대림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실 그 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촛불을 켵니다, 그 촛불은 기쁨을 상징 합니다. 그 기쁨의 말씀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우리에게 사막을 꽃 피운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진정한 경험들이 상실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박탈감, 경험에서 비롯된 것 들이 따라 올 때 가장 아름답게 발산합니다. 그것은 사막의 상징이자 우리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우리 주위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환 속에, 하나님의 분리 할 수 없는 임재의 약속과 함께 성 육신은 돌파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선물을 위한 희망과
평화 안에서 미래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집니다.